

2016년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지원 지원심의 총평

○ 회의일시 및 장소

- 1차 심의 : 2016. 3.30(수) / 2차 심의 : 2016. 4. 8(금) / 3차 심의 : 2016. 4.27(수)

2016년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지원 사업에는 총 56개의 개인 및 단체가 응모했다. 1차 서류심사, 2차 프레젠테이션심사, 3차 자문 및 심의를 통해 총 12건에 대한 지원이 결정되었다.

심의기준은 기획자의 예술적 역량 및 기획의 명확성(30%), 전시 기획의 예술적 수월성(20%), 전시계획의 충실성과 실현가능성(20%),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30%)에 두었다. 3차 자문 및 심의 단계에서는 시각 내외 분야의 자문위원 4인을 추가로 위촉하여 폭넓은 관점에서 자문을 진행하였다.

본 사업은 우수 기획 전시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들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성격상 질적 부분에 비중을 두고 평가하였다. 특히 미술계 이슈를 주도할 기획력과 추진력, 참신한 기획의도, 전시의 사회적·공익적 파급력 등을 중점 평가하였다.

다만, 본 사업의 의도와 목적에 부적절한 신청이 많았던 점, 참신한 기획력을 갖춘 사업이 적었던 점, 전시계획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기획안들이 많았던 점은 아쉬웠다. 또한 작가구성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비해 전반적으로 주제에 대한 깊은 문제인식이나 배경에 대한 탐구가 보이질 않거나 아이디어의 신선함에 비해 작가 구성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보다 균형감을 갖춘 탄탄한 기획이 요구된다.

향후에는 기획단계, 전시실행단계 등을 나누어 사업실행의 내실을 기하는 방안이 지원사업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수 기획전시를 통해 창작과 확산을 추구하는 본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두어 작가 및 기획자를 지원하고 우수한 전시를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6년 시각예술창작산실 심의위원 일동